

산나물, 고소득 작물로 부상

두릅나무, 참죽나무, 산마늘, 둥굴레등 개발가능성 커

두릅나무, 참죽나무, 산마늘 등은 약리성이 높고 수익성도 좋아 농가가 단기재배로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유망작목으로 주목된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최근 약리성이 월등하고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산나물의 산지 재배 및 증식법의 연구결과 두릅나무, 참죽나무, 산마늘, 고려엉겅퀴, 둥굴레, 곶취 등이 재배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산나물은 일반적으로 담을 삭이고 이뇨작용이나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해열작용, 진경, 진통, 혈압을 강하시키는 효능이 있어 건강식품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은 대단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려엉겅퀴, 참죽나무, 둥굴레는 배추와 비교해서 미네랄과 비타민성분이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한편 산림청은 앞으로 수익성이 높아 재배가 유망한 산나물을 중심으로 적정 경영규모, 투입자금 및 노동력, 수급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 경영모델을 구축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약초주산단지
냉풍건조기 지원
강원도

강원도는 약초 생산농가들의 건조작업 편의를 돕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횡성, 평창, 인제 등 주산단지 농가단체 3개

지금 연구소에서는

옷칠액 속에서...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나천수박사(유산수와 특용수 연구팀)는 21일 옷칠액속에서 강력 한 항암물질인 「우루시올」과 「MU2」분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박사가 추출에 성공한 MU2는 항암효과가 탁월하고 수용성이 높으나 옷오름(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급성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구명됐다.

또한 연구팀은 옷칠 채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량채취가 가능한 화질채취 기계화에도 성공, 이 약용실험 결과가 상용화될 경우 농가소득 증대와 국내 암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뽕나무 뿌리에서...

뽕나무 뿌리에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물질이 추출됐다.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소장.이재진)는 24일 뽕나무 뿌리에서 동맥경화의 주원인인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리포단백 콜레스테롤을 크게 떨어 뜨리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물에 잘 녹는 천연 복합체로 인체에 해가 없으며 실험용 쥐에 투여한 결과, 기존 물질보다 동맥경화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고 콜레스테롤 혈중유발물질 투여로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71.7mg인 희쥐에 뽕나무 뿌리 추출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자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보통쥐에 비슷한 63.8~64.2mg까지 떨어졌다.

수의과학연구소는 이같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뽕나무 뿌리 추출물을 이용한 생약과 이를 첨가한 음료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소에 약초 냉풍건조기를 지원한다.

이 지역에 건조기가 설치될 경우 취나물·고사리등도 가공할 수 있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약초 생산농가들이 현재

열건조 방법을 통해 약초를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약초 고유의 성분이 추출되고 색깔과 품질이 떨어져 농가수취 가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2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냉풍건조기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지황PE필름 피복재배

일손적게 들어 소득향상

중산간지에서 지황을 재배할 때 검은색 폴리에틸렌(PE)필름으로 피복 재배하면 수량은 벚짚이나 썩은 나뭇잎으로 피복하는 것보다 다소 떨어지나 인건비가 적게 들어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농촌진흥원 진안숙근약초시험장에 따르면 검은색 폴리에틸렌필름 피복의 10a(3백평)당 수량은 1천4백83kg으로 피복하지 않을 때의 1천2백69kg보다는 17%인 2백14kg

많으나 벚짚피복의 1천5백21kg과 썩은 나뭇잎으로 하는 부엽피복 경우의 1천5백48kg 보다는 각각 38kg과 65kg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은색 폴리에틸렌필름 피복재배의 경우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10a당 68만6천원으로 무피복의 98만1천원 보다 30%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당귀 지난달 근당(6백g 기준) 7천5백원선에 거래되던 토당귀가 산지에서 6천원~6천5백원 선으로 지난달비 1천원~1천5백원 이나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시세하락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적인 불경기의 여파로 거래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파종을 마무리 중인 요즘 산지에서는 중국으로 부터 당귀종자 약 80가마가 들어와 이미 파종됐다는 후문과 함께 술렁거리는 분위기.

당귀종자 1가마가 2만평 재배분량이라고 가정할 때 80가마는 약1백60만평 재배시 종자소요량. 수입 당귀종자가 이대로 재배 수확될 경우 국내 당귀 재배 농가와 당귀시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천마 최근 몇년동안 과잉재배되기 시작한 천마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예년에 근당(6백g 기준) 2만원대를 호가하던 천마시세가 요즘엔 1등급이 1만8천원, 중품이 1만3천~1만4천원 선에서 산지거래되고 있다. 자연산 생것으로는 kg당 4천원선.

백출 개량종이 국내에 들어와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토백출시세도 예년보다 떨어진 근당(6백g) 9천원 선에 산지거래되고 있다.

수급조절위원회의를 통해 들어온 울 상반기 수입물량 6백t 말고도 일명 '보따리물건' 형태로 밀반입

된 수입백출이 시장에서 근당(6백g 기준) 3천8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토백출 시세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수입백출들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만큼 국산백출과 비슷해 국산으로의 둔갑유통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국내재배된 개량종 백출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백출과는 또 다른 종으로 색깔

이나 향, 조직구성등 품질면에서 국내산은 물론 수입산 보다 오히려 질이 떨어진다는 평. 그래서인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개량종 백출은 찾아볼 수 없다. 아직은 백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물론 거래가 없어 가격형성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황기 1년근 소황기가 근당(6백g 기준) 5천5백~6천원 선에, 중황기가 1만5천~2만원 선에, 5년근 이상 대황기가 2만7천~3만원 선에 산

지거래되고 있다. 1년근 소황기 시세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황기와 대황기는 품질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략 1만원 대에서 3만원 선 까지 다양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길경 생도라지가 근당(6백g 기준) 8천~1만4천원대의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길경은 근당 5천5백~6천원 선으로 생도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생도라지로의 출하가 물림에 따라 국내산 한약재 길경은 산지에서도 물량이 귀한 형편. 자연산 산길경은 근당(6백g 기준) 1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길경은 한약재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급조절품목이긴 하지만 식품으로는 수입이 자유로운 틈을 타고 생도라지형태로 통관되어 시장에서 한약재인 길경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 따라서 국내산 길경시세가 물량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최근에도 부산세관을 통해 30t에 이르는 물량이 또 말린 생도라지 형태로 통관됐다는 후문. 이렇게 들어온 생도라지는 건조후 한약재 길경으로 근당(6백g 기준) 4천~4천5백원 선에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산지인의 귀뜸이다. <문>

시세동향